

장보고의 바다에서 청해진의 후예를 만나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가 운영하는 장보고아카데미는 7월 27일~8월 1일 도서지역 섬 아이들을 위한 장보고 유적여행을 완도와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진행했다.

유적여행에는 28명의 완도지역 어린이들과 12명의 지도자, 진행자 등 40명이 참여해 완도의 장보고 동상과 기념관, 옛 부대진지로 알려진 장도, 장보고의 주요활동지역인 위태, 석도, 적산법화원 등을 순례했다.

#청해진이 있는 완도를 떠나며

남도 끝자락에 위치한 완도는 지금은 대표적 휴양지이지만 1200여 년 전 동북아 해상을 장악하며 '해신(海神)'으로 불렸던 장보고의 고향이자, 청해진이 설치된 동북아 최고의 무역항이기도 했다.

40명의 장보고 탐방객은 완도에서의 입제식 등을 시작으로 다음날 평택항으로 출발했다.

일행이 가는 산동성은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중국 땅이다. 한반도와 산둥성을 잇는 뱃길은 선진문물을 전하는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침략을 위한 바닷길이었다.

기원전 109년 한무제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수군 5만을 거느리고 지났고, 수·당 때에는 이들과 대등하게 맞섰던 고구려와 백제를 치기위해 수십만의 군사를 이끌고 온 항로이다.

일행은 파도를 헤치며 달리는 배위 갑판에서 선조들의 마음을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영성항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서기 820년대 초반 장보고 대사가 세운 적산법화원이 있어 당시 중국에 살던 신라인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했다.

일본 천태종의 중흥호이기도 한 엔닌 스님은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적산법화원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장보고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이후 엔닌 스님은 고국에 돌아가 일본 불교를 크게 일으킨 스승이 됐다.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

적산법화원에 가기 앞서 중국 어린이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어린이 28명과 중국 어린이 25명. 첫 만남은 너무 서막했다. 서로가 말도 통하지 않은데다, 낯선 중국음식을 앞에 둔 답사단 아이들은 그저 멍히 음식만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아이들은 나름의 소통방법을 발견했고 이내 친해졌다.

장보고아카데미와 적산법화원은 어린이들의 첫 교류를 지속시키기 위해 자매결연과 교류협정을 맺었다. 다음 해에는 중국에서 한국의 장보고 유적답사를 오기로 했다.

적산법화원은 당나라 때 장보고 대사가 지은 절로 창립 초기에 <법화경>을 읽었다 해서 유래된 것으로

당시 산둥지역에서 제일 큰 불교사원이었다. 법화원을 중심으로 신라인들의 거주지역인 신라소와 신라방이 있었다.

지금의 적산법화원은 그 옛날 장보고가 지었던 법화원은 아니었다. 1988년 영성시는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선조들의 위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일본 신도들의 지원을 받아 원래의 위치에 법화원을 세웠다.

적산법화원은 주건물인 대웅보전과 관음전을 비롯해 마당에는 장보고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들뜬 날은 대본 작성과 배역을 정하고 각자 배역을 맡아 연습을 했다.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

연극만들기. 장보고의 삶 중 한 부분을 아이들 스스로 작가와 배우가 돼 직접 대본을 만들고 분장을 하여 연극을 보여주는 미션이다. 하지만 2일 동안 3시간 연습만으로 연극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줬다.

5~6명으로 만들어진 각 반별로 진행된 첫 번째 연습시간에는 연극의 주제와 연극장면을 선택하는 것이다.

들뜬 날은 대본 작성과 배역을 정하고 각자 배역을 맡아 연습을 했다.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



적산법화원 입구에서 중국 어린이들과 함께 한 기념촬영.

적산법화원에서 조금 올라가면 장보고기념관이 있다. 5개 전시실과 시청각실로 이루어진 이곳은 장보고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유물과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다.

장보고의 후예들이 완도 어린이들과 중국 어린이들은 서로의 우의를 다지는 행사와 그림을 그리며 짧은 시간을 보냈다.

오는 배에서는 연극발표회가 있었다. 이렇게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 연습한 공연은 그야말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장보고 대사와 백설공주의 외국어 정복을 위한 별락치기 대작전'은 아이들이 연기한 제목이다.

아이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로 40분 동안 배안을 가득 채웠다.

이번 어린이답사단은 4박5일 동안 영성의 적산법화원, 중국에서 한국에 가장 가깝다는 성산두, 위태에 있는 산동성 최대 규모의 해양 수족관, 봉래의 여덟 신선의 전설이 전해진 팔선과해, 석도의 야생 동물원을 둘러보았다. 또한 장보고 대사의 주요활동지역과 무명군 태수로 관리했던 산둥지역을 탐방했다.

장보고 대사의 삶과 사상을 배우고 자 장보고 퀴즈대회, 전래놀이, 연극만들기 등 미션도 진행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생각했다. '신라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이 바다를 건넌을까. 장보고 대사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을까?'



한중우호 기념비.

이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금도 남아있는 장보고 유적 장도에 있는 목책.

장보고 연극·퀴즈 등 다채로운 미션 '재미'

적산법화원·해양수족관·팔선과해 등 둘러봐

해상왕 장보고는?

몇 년 전 TV 드라마 '해신'으로 잘 알려진 장보고 대사의 본명은 공복(弓福)이다. 그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서남해안 지방 토호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 무예에 자질이 있어 당나라로 건너가 서주(徐州)의 무명군(武寧軍) 소장(少將)이 됐다. 당에서 귀국한 뒤 828년(흥덕왕 3) 왕에게 청해(靑海)를 진수(鎭守)할 것을 청했다. 당시 서남해안에서는 당의 해적들이 신라인을 노략질해 노비로 팔거나 무역선을 약탈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1만명의 군사를 모아 청해진(靑海鎮; 지금의 완도)을 건설했다.

청해진이 건설된 뒤 그는 해적을 소탕해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했고, 당·신라·일본을 잇는 해상무역로를 통한 무역활동을 주도했다. 해상무역을 통해 일종의 해상왕국을 형성한 그는 당나라에 건당매물사(唐唐賣物使)와 함께 교관선(交關船)이라는 무역선을 보내 교역활동을 했다. 그의 세력은 국제적으로 극히 번성해 중국에 유학한 일본의 엔닌 스님은 그에게 정중한 편지를 써서 귀국할 때의 뱃길을 부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무역활동을 통해 확보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중국의 산둥성(山東省)에 법화원(法華院)이라는 절을 세웠다. 이곳에는 많은 승려가 머물며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었고, 청해진과의 연락기관 구실도 했다.

新 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14-1 일본산 후리시아행탄 13-1 일본 영원향(소바라) 13-2 일본 영원향(소바라)

2-1 아광용 링크 70 x 35cm / 2-2 밀납초 반야심경 70 x 35cm
2-3 옥향초·아광용 70 x 35cm / 2-4 봉황초 진사지 70 x 35cm

7-1 P.C 컵 밀납초 받침대 / 7-2 P.C 컵 밀납초 연소시간 약 8시간
7-3 바람막초

5-1 웨딩초 육각초 70 x 45cm

15-1 액체 파라핀 18L